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3

▶ 14회 예고

목갈리뿟다띳사는 어린 아쇼까 왕자에게 자비심을 키워주기 위해 숲속에서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친다. 그런데 아쇼까는 까마귀를 죽이려고 하는 등 살생하는 습관을 끊지 못한다. 결국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 곁을 떠나고 만다.



목갈리뿟다띳사, 아쇼까 왕자 스승 되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언제나 그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않았다. 탁발할 때만 잠시 자리를 비울 뿐이었다. 다른 수행자들이 물이 담긴 토기항아리를 놓고 갔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손발을 씻고 양치할 물이었다. 칼라따까 제관이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칼라따까 대신이 다가와 말했다.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대왕을 만나러 가야겠소."

"궁궐로 갑니까?"

"아닙니다. 왕비님 별궁으로 가 있으라는 대왕님의 분부를 받았습니다."

"좋소, 갑시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했다. 물건이라고 해봐야 빈 토기발우 한 개, 물이 담긴 항아리 한 개, 담요로도 사용하는 긴 숄 한 장, 몽당빗자루 한 개뿐이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한결같았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칼라따까는 내성을 드나드는 불교 사문을 수소문했을 때 다른 수행자들이 왜 목갈리뿟다띳사를 지목했는지 알만했다. 두 사람이 다르마 왕비별궁에 도착했을 때 락슈미띳사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왔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왕비님은 계시는가?"

"예, 하지만 대왕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쇼까 왕자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왕자님은 후원에서 혼자 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대왕님이 오실 때까지 후원에 있겠다."

두 사람은 다르마 왕비별궁 후원으로 돌아갔다. 아쇼까가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물었다.

"제관이시여, 왕자님은 올해 몇 세이십니까?"

"왕비님 뱃속에 있는 기간까지 합친다면 다섯 살입니다."

"글을 배울 시기가 됐군요."

"그래서 대왕님께서 사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쇼까는 두 사람이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 놀이에 빠져 있었다. 나뭇잎에서 푸르스름한 애벌레를 손으로 잡아 반반한 바위에 놓고 돌멩이로 짓이기곤 했다. 죽은 애벌레들이 한 줌은 되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움찔 놀랐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왕자님, 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군요."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밥은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지요."

"밥 먹는 것보다 이 나쁜 애벌레를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쁘다니요, 애벌레들이 커서 아름다운 나비가 된답니다."

"이 애벌레들이 나뭇잎을 갉아먹는다고 궁녀 누나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애벌레를 죽이는 거예요."

목갈리뿟다띳사는 살생을 합리화시키는 어린 아쇼까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다. 아, 이 아이는 자비심이 부족하구나. 목갈리뿟다띳사는 입을 다문 채 그대로 서 있기만 했다. 그러자 아쇼까가 물었다.

"처음 보는 이 분은 누구예요?"

"왕자님께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치실 분입니다. 대왕님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별궁으로 오십니까?"

"곧 오실 것입니다."

그제야 아쇼까가 손에 든 돌멩이를 던져버리더니 별궁으로 뛰어갔다. 머쓱한 표정으로 서 있던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칼라따까가 말했다.

"어린 왕자들이 천방지축입니다. 그래도 아쇼까는 얌전한 편입니다. 대왕님께서 애지중지하는 수시마 왕자는 제멋대로입니다. 인자한 라다굽따 제관이 아니면 그 누구도 수시마 왕자 옆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10살이 넘은 수시마 왕자가 장난으로 라다굽따 제관의 수염을 뽑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왕자도 왕자지만 가르치는 대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브라흐민 전통을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자에게 밝은 지혜를 싹트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명지(明智)라 합니다."

그때 락슈미띳사가 달려왔다.

"제관님, 대왕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별궁 접견실로 락슈미띳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접견실 맞은편 중앙에는 빈두사라가 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좌측 작은 의자에는 다르마 왕비와 아쇼까 왕자가 앉아 있었다. 우측 두 개의 작은 의자는 칼라따까와 목갈리뿟다띳사가 앉을 자리였다. 칼라따까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왕이시여, 말씀드린 사문을 데리고 왔사옵니다."

"법력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소."

"대왕이시여, 저는 보잘것없는 사문 목갈리뿟다띳사라고 하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소?"

"베살리 산속 동굴에 있었사옵니다. 대왕님께서 모든 수행자들이 내성에 살아도 된다고 허락하시어 지금은 대왕님께서 내리시는 공양을 받고 있사옵니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이분은 다르마 왕비님이오."

"저에게 왕자님을 맡겨주신다면 영광이옵니다."

"사문이시여, 아쇼까를 잘 가르쳐주십시오."

목갈리뿟다띳사가 앉은 채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목갈리뿟다띳사의 소개가 끝나자, 빈두사라가 서둘렀다. 목갈리뿟다띳사의 법력을 직접 보고 싶었다. 빈두사라가 말했다.

"나에게는 나를 가르친 스승 까우띨리야 대신이 있었소. 왕자도 나의 스승 같은 현자를 만나게 하고 싶소. 나의 장자 수시마는 라다굽따 대신이 맡아 가르치고 있소."

"대왕이시여, 라다굽따 제관은 인품이 자애로운 분이옵니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를 한껏 추켜세웠다. 그는 함부로 행동하는 수시마를 자신이 맡지 않고 있는 것을 행운으로 여겼던 것이다. 대신, 빈두사라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다르마 왕비의 아들 아쇼까를 맡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빈두사라가 주저했다. 그 이유는 칼라따까가 너무 제사나 축제 같은 브라흐민 전통에 집착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칼라따까 대신에게 아쇼까를 맡길 생각이었소. 하지만 제사 지내기에 바쁜 칼라따까 대신은 사문을 특별히 추천해 주었소."

"대왕이시여, 소승은 부처님 계율대로 살고 있는 수행자일 뿐이옵니다. 그러니 너무 큰 기대는 말아주시옵소서."

"사문의 법력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소. 여기서 보여줄 수 있겠소?"

"황공하옵니다."

"아쇼까에게 특별한 전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오?"

빵갈로바뜨사에게는 미래를 물었는데 목갈리뿟다띳사에게는 과거를 물었다. 불교와 아지비까교의 차이였다. 불교 사문은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아지비까교 수행자는 미래를 예언했다. 불교 사문이 미래를 말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는 붓다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다르마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아쇼까를 부드럽게 응시한 뒤 말했다.

"왕자님께서는 전생에 쌓은 특별한 공덕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시오."

빈두사라뿐만 아니라 모두가 목갈리뿟다띳사를 주시했다. 어린 아쇼까만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별궁 접견실 천정에 어른 손톱만 한 벌레 한 마리가 날았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바로 엊그제 일어났던 일처럼 아쇼까의 전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함께 성 안으로 탁발하시러 가는 길에 소꿉장난을 하는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귀족의 아들이었다. 키가 작은 아이 이름은 자야(Jaya)였고, 다른 아이는 비자야(Vijaya)였다. 두 아이는 흙으로 성을 만들고, 성 가운데는 집과 창고를 지었다. 아이들은 창고에 보릿가루라고 하며 흙을 가득 쌓았다. 그때 제따와나(기원정사)를 나온 부처님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부처님 몸에서 나는 금빛이 성 안팎을 비추었다. 두 아이는 부처님의 밝은 빛을 보고는 놀랐다. 키가 작은 자야가 자신도 모르게 창고 안에 있는 흙을 보릿가루라고 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키가 작아 부처님 발우에 손이 닿지 않았다. 이에 비자야가 엎드려서 자야가 자신의 등 위로 올라가 부처님 발우에 공양 올리는 것을 도왔다. 흙을 공양한 자야가 마음속으로 빌었다.

'어른이 돼서 공양할 때는 천지를 덮을 만큼 많이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아이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들었다. 부처님이 옆에 따라오는 아난다에게 말했다.

"이 흙으로 내 방 허물어진 곳을 바르거라."

제따와나로 돌아온 아난다가 부처님 방의 허물어진 곳을 다 바르고 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두 아이가 내게 흙을 공양했으니 그 공덕이 클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아쇼까가 나중에 왕이 된다는 말은 빈두사라 앞에서 차마 할 수 없었다. 빈두사라는 목갈리뿟다띳사가 전생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만족했다. 아쇼까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뿐이었다. 아쇼까가 받게 될 공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빈두사라는 곧 별궁 접견실에서 일어났다. 별궁 접견실을 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사문이여. 그대의 법력을 보았으니 나는 더 망설일 이유가 없소. 지금 바로 아쇼까의 스승이 되어 잘 가르쳐주기 바라오. 칼라따까 제관은 할 일이 있으니 앞서시오."

빈두사라와 칼라따까 대신이 나가고 나자, 다르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무언가 더 들을 이야기가 있다는 표정이었다. 다르마가 말했다.

"아쇼까여, 나가 있으렴. 너의 선생님과 할 이야기가 있단다."

"그렇지 않아도 락슈미띳사 누나가 이발소에 가자고 했어요."

아쇼까마저 나가버리자 접견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다르마가 목갈리뿟다띳사를 주시하면서 먼저 침묵을 깼다.

"사문이시여, 아쇼까에 대해서 대왕께 다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비님께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아까 아쇼까 왕자님이 애벌레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오늘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쇼까의 미래가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앞으로는 애벌레 한 마리라도 살생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쇼까가 함부로 산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할 터이니 말해주시오."

그제야 목갈리뿟다띳사가 빈두사라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저 했다.

"왕자님은 왕이 될 것입니다. 삼보를 받드는 왕이 되어 팔만사천 탑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소승의 예언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허나 왕이 된다고 소문나면 왕자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르마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바로 신뢰했다. 짬빠성에서 자나사나 구루에게 들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다르마가 또 물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옆에서 도왔던 아이는 누구입니까?"

"아쇼까 왕자님이 왕이 되시면 보좌할 대신입니다. 끝까지 왕자님을 도울 대신입니다."

다르마는 그가 누구인지 집히는 데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칼라따까는 아니었다. 비록 브라흐민이지만 편견이 적은 라다굽따일 가능성이 컸다. 그는 칼라따까보다 더 불교 사문들에게 관대한 편이었던 것이다. 〈계속〉

불보살님의 상서로운 대광명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소서.

(사)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종도일동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

◈ 입종서류 ◈
1.입종자격 : 스님, 법사, 포교사. 보광사에서 득도 출가자
2.입종서류 : 신행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3장
3.입종비 : 30만원, 년회비 20만원

◈ 입종시 발급서류 ◈
1. 사암등록증 2. 주지임명장 3. 승려증 및 법사증

◈ 입종문의 ◈
전화 : 보광사 042)284-3929 팩스 : 042-283-5894
총무원장 동화 : 010-8552-7108
(동국대 불교학과,불교대학원 졸)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가오동 보광사)
※ 입종후 위 서류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됨

사)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광사 주지 동화

NAVER Daum 에서 현대불교조계종 보광사를 검색하세요. http://bogwangsa.kr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단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